

데스크 시각



최재호 경제부장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되는 에너지벨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에너지벨리가 성공하면 나주는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가 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이 지역 산업단지에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벨리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것은 이미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드러났다. 애초 기대와 달리 많은 이전 기관 직원들이 나주 거주를 포기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거주하거나 가족과 아예 떨어져 사는 것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살 만해야 기업도 몰려들 텐데 가장 기본적인 정주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니스의 소피아(Sophia) 앙티폴리스(Antipolis)는 과학기술산업도시의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토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길을 찾다

한 사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필자가 다녀온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수도에서 남쪽으로 800km 떨어진 중수도시다. 지중해와 알프스 남부 산맥 사이의 남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휴양도시 니스(Nics)와 칸느(Cannes)의 배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숲속의 아늑한 친환경적 도시

니스, 칸느, 그라스, 앙티브 등 4개 도시의 중심에 자리한 이 도시는 혁신클러스터라기 보다는 아름다운 휴양림 같다. 총 도시 면적은 24㎢로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살리고 높은 일조시간을 이용해 태양열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으로 설계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보존해 건물이나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는 총면적의 10%를 유지하고 건축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주변 지형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래서 이곳 이 도시의 건물들은 12m, 4층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숲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는 1960년도 이전에는 농업 관광 산업으로만 유지되던 곳으로 대학이나 연구소·기업 등 산업적인 전통이나 지적 자산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1969년 프랑스 최초의 산업집적지로서 설립된 후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며 파리에 국한된 국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 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조성됐다. 올해로 설립 47주년을 맞이한 이 도시는

인구 35만 명, 단지 규모 690만 평에 63개 국에서 온 1500여 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3만6000명에 이른다. 프랑스 남부 지역의 기술집약적 산업거점 도시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 도시는 20년 경과한 시점에서 프랑스 모델, 30년이 지나서는 세계적 모델이 됐다. 특히 계획적으로 단지나 도시를 개발해 세계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 스웨덴의 시스타,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더불어 성공적 사례로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은 30년 이상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해안과 관광여건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양호한 입지조건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분산 정책, 인프라 개발과 연구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과 제도적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벨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성공 요인이라 하겠다. 다국적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유치와 더불어 이들로부터 창업 기업이 파생되고 성장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다.

정부와 지자체 공조 지원 절실

특히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고급 인력이 선호하는 양호한 입지조건을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아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점들은 아직 정주여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주여건 조성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선결조건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그런 점을 주목했다. 초기 인구 4만 명 도시로 계획해 리조트풍의 주택, 테니스코트, 풀, 골프코스, 쇼핑센터, 극장, 미술관, 호텔 등을 건설해 고급 인력이 선호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와 반대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혁신도시 상공회의소와 민간협력기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지 모르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당초 전남도와 광주시 및 나주시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공조와 뚜렷한 목표가 없이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벨리가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클러스터로서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은 세계적 과학기술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당초 전남도와 광주시 및 나주시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공조와 뚜렷한 목표가 없이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벨리가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클러스터로서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은 세계적 과학기술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 lion@kwangju.co.kr

社說

호남의 여당 정치인 지역 현안 해결 앞장서야

최근 구성된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에 정 승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류했다. 원도 출신인 정 전 처장은 지난해 4·29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이지만 정 전 처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유일한 여당 창구 이턴 이정현 의원의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졌을 것이다. 여기에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훈현(목포), 신보라(광주) 의원의 활동도 기대된다.

지난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당선된 호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은 이정현·정운천 두 의원뿐이다. 물론 야당으로 지역 다수당이 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안 해결에 적극 뛰겠다고 공언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록 낙선했지만 정 승원이 비대위원회에 발탁된 것은 고무적이

다. 새누리당 입장에서야 불모지나 들없는 광주·전남을 끌어안으려는 정치적 포석 차원의 인선이었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과의 물꼬를 더 넓혔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광주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은 예비타당성 통과 문제로 2019 수렴선수권대회는 예산 지원 문제로 난관에 빠져 있다. 또한 전남의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궁화호 경유 노선 조기 확장과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은 정부 태도가 애매해 확실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이정현 의원과 정 승 위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여권 인사들은 역할을 발휘해 지역 현안이 본궐도에 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해당 인사들을 둘러싸고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선박 그대로 아직도 불안한 전남 여객선

전남 연안 여객선들이 선박 노후화와 항해 부주의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불안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칫 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돼 근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공개한 선박의 안전도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연안 여객선 사고는 모두 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20건이 전남 연안에서 발생했는데 여수 11건, 목포 8건, 완도 1건 등이다.

특히 최근 4개월 동안 전남 연안에서 11건에 달하는 연안 여객선 사고가 발생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객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상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많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85개 항로에서 143척이 운항 중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4개 항로 76척이 전남 연안을 항해

하고 있다. 운항 빈도수가 높은 만큼 사고 위험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객선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수없이 공언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쏟아졌던 여객선 안전 대책 가운데 상당수는 대책 자체가 폐기되거나 여전히 검토도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한 대표적 대책인 선박공영제는 소리 없이 폐기 됐다. 실제 전남의 56개 항로 중 14개 항로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선박공영제가 실질한 형편이다.

대형 참사를 그렇게 수없이 겪고도 여전히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탁상공론에 그치는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선박공영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천하지 않는 안전 대책은 허상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가운데 하나가 광부 아닐까 싶다. 가난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이끈 이들이 바로 광부다. 1960년대 독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택한 것이 광부와 간호사 파견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들 덕에 차관을 들여와 근대화의 종착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부들의 힘든 작업 환경을 대표하는 단어가 ‘막장’이다. 광부들이 석탄을 캐는 광도의 막다른 곳으로, 흔히 ‘갈 데까지 갔다’는 의미로 쓰인다.

막장에 선 광부

강진에 집거 중인 손기환 씨가 두 번이나

화순탄광 광부들이 막장에 섰다. 적자를 이유로 석탄공사를 정리하기로 한 정부가 내년에 화순탄광부터 시작해 2021년 도계탄광까지 모두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화순에는 한때 16개 광산 종사자만 5000여 명에 달했고 탄광 예산이 화순군 전체 예산보다 많은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 지금은 달랑 광산 1개에 근로자 수가 51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직도 화순탄광이 지역에서 창출하는 돈은 1년에 465억 원이 나 된다. 종사자 가족까

지 포함하면 1개 면 인구에 해당하는 1600여 명이 탄광으로 먹고 사는 셈이다. 화순탄광 폐광 여부가 오늘 결정 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광부들의 생존권 문제는 확실히 챙겨야 할 터인데 각 지역의. 현명한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터주는 법인데...

마지막으로 연탄연구이 맞닿도 사라질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연탄연구이 맞닿 하나쯤은 있다. 하지만 봉양(아나고) 구이이 일품인 광주 삼부지구 연탄연구이 집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도 40년 전 탄광 경험이 있어 가능했다고 한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은편칼럼



임명애 약사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구이역에서 19세 청년이 혼자서 지하철역의 추락방지용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가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 원칙 데로라면 두 사람이 함께 정비를 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혼자서 허겁지겁 달려갔다. 고장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도착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 2인 1조 근무수칙은 회사 측에 의해 무시된 반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작업자의 철칙이었다. 사고 이전에도 수많은 날들을 정신없이 홀로 뛰어다녔을 것이다. 밤도 제대로 쉰 적이 못해 기생에는 컵라면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아마 그 컵라면도 제대로 갖

최저가 입찰과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쿤타킨데

추어진 장소에서 마음 편하게 먹지 못했을 것이다. 19세에 불과하다. 내 나이 19세였을 때 얼마나 절망했었는가? 우리 둘째 아이와 같은 또래인데, 이 친구만큼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세월호에서 받았던 충격이 또 이어진다.

쿤타킨데는 미국의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가 1976년에 발표한 소설을 미국의 ABC방송사가 미니시리즈로 제작해서 방영한 유명한 드라마 ‘뿌리’의 주인공이다. 전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약소국을 침탈하고 피지배국의 국민들을 노예로 사고팔았다. 모두가 경제치였다. 대량생산으로 대량소비를 쫓아가는 시절이었다.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단가가 낮고 저임금의 노동자를 확보해야만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이 높이는 시대였다. 인건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국민의 노동자마저 수단으로 여겼던 그 시절에 노예의 처지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짐승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팔았을 것을, 인간이기에 지독한 차별과 멸시의 모멸감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저항했다. 작은 노력들이 커다란 힘을 축적했고 세상은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드라마는 그 과정을 묘사했다.

우리는 마치 이러한 현상이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고 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적은 비용을 제시하는 회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고 하청업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합당한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는 것이 다행일까? 우리는 매일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억권고투하는 젊은이들을 마주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우리는 이제 노예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불황형 흑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5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라고 한다. 국가와 기업은 돈을 버는데 노동자들이나 소외계층의 삶은 나이지는 김새가 없을까? 박근혜대통령은 수시로 해외를 순방하며 스위스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는 데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국민 행복지수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비록 기업이 이윤추구를 극대화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마저 이러한 것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1366’ 단골손님은 사절합니다

망할 수도 있다. 그만큼 위기 현장에서 1366의 상담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원들이다. 상담원들은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나서 이차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신의 일처럼 고통을 받는 것이다.

1366광주센터는 상무지구 일가정양립 지원본부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9명의 상담원 중에 10년 이상 되는 위기개입전문가들이 6명이나 있어서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자부한다. ‘062-1366’에 전화를 하면 휴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66광주센터’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상담자원봉사자를 길러내고 있다. 그런데, 1366센터 근무자들은 힘든 근무여건을 감내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1366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려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이 누적, 반복되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상담원이 건강해야 피해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담원 안전,

건강과 관련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감정소모가 크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대책 또한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왜 가정폭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매스컴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 신고하고 도와야 한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가? 안전한 먹을거리보다. 화사를 막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그 어떤 발암물질보다도 위험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데 여러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민의 관심과 예방노력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강화되더라도 사회적 경각심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 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폭력예방을 위한 전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 일환으로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다. 기업이 극대화한 이익을 그러한 이익의 축적에 기여한 각각의 국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한다.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은 최저가뿐만 아니라 적정가입찰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은 세금이다. 기업에게 세금을 절감해주는 것이 곧 국민의 삶의 질과 결코 직결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관여해야한다. 그리고 가능한 소외계층에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삶이 행복했었을 때 국가의 경쟁력 또한 절절로 높아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가 앞서서 서민의 삶을 변화시켰던 시절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인간 존엄에 상처받는 시민이 많아지면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치열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삶을 놓은 김군을 추모하고 또 다른 수많은 김군들에게 오늘의 희생이 계기가 되어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1366이 주축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다. 1366광주센터의 2015년 상담 건진수는 1만1634건인데 그 중에서 가정폭력이 55%(6440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정폭력의 실태를 시민에게 알리고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매일 터미널,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광주송정역 등에서 거리캠페인, 홍보, 이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여성을 돕고 있다. 8월에는 1366광주센터의 주관으로 보라데이 행사를 금남로 만남의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 오늘 밤만은 손님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근준비를 서두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1366상담원들이다. 상담원들은 가정폭력에도 다시는 1366을 찾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손님이라고 부른다. 또한 단골손님은 사절한다고 한다. 단골이 되면 아직도 가정폭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골손님은 사절하고 싶다고 한다. 모두가 잠든 새벽 진한 커피 향기와 더불어 오늘도 1366의 등대지기들은 불을 밝히고 있다.

기 고



이달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부서가 있는데, 바로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이다. ‘어제 밤에는 별일 없이 무사히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상담을 하고 긴급피난처를 이용하였는지’를 챙길 때마다 마음 무겁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번호와 1366만 누르면 되는 특수전화다. 365일 24시간 운영돼 여성의 인권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1366은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위급환자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일반병실로 옮기기 전에 사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